

“화쟁은 세계와 인간의 본래 모습”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세계학자 열면 토론

원효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조망한 대규모 학술회의가 지난 18.19일 이틀간 타이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이 주관한 이 학술회의는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란 주제로 열려, 국내외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첫째날,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를 발표한 UCLA의 로버트 버스웰교수는 「원효는 그의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업적 때문만이 아니라 토착적 전통의 전개에 깊은 영향을 끼친 그의 인격으로 인하여 한국적 전통의 문화적 모형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불교고승전(高僧傳)의 실례로서 더 가치있는 주제를 찾아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전기작가들의 전기(傳記)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를 조명했다.

이어 스텐포드대학의 베르나르 포르교수는 「사상으로서의 원효의 생애」를 통해, 현대사회의 원효의 중요성은 그의 학문적 업적에서 보다 크다고 하는 화쟁(和諍)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리적인 논문을 넘어 반영된 원효는



◇이기영박사



◇로버트 버스웰



◇베르나르 포르



◇유베르 듀르트



◇아마오리 테오조

〈삼국유사〉속에서 옹호되어진 이상적인 실천가라는 비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반종요(涅槃宗要)」를 발표한 유베르 듀르트(프랑스 국립대학 연구원)는 「열반종요」의 중요성을 분석하면서 원효가 다른 원효론을 인용할 때 경(經)의 인용문을 대체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화들은 경의 주요한 뜻을 확실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중국불교의 학문적인 환경기에 원효를 당대 불교의 모든 위대한 거장들과 구별하게 하는 독특한 문체라는 것이 듀르트의 주장. 한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의 아마오리 테오조(山折哲雄)교수는 「원효와 명혜(明惠)」에서, 일본 화엄종 부총자의 한 사람인 명희의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調査會傳)〉에 묘사되어 있는 몇 개의 광경을 통해 명혜와 원효의 화엄사상을 비교 연구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부영교수는 「일심(一心)의 분석심리학적 조명」이란 독특한 주제로 관심을 모았는데, 이교수는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소(疏)와 별(別)역설(別說)에서 말하는 「일심」은 분석심리학의 심리학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즉 일심은 정신의 전체성, 의식과

검토에서 「원효의 '화쟁'은 세계와 인생의 본래 모습을 의미하는 담위(담위)면서 동시에 그의 학문적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불교연구원의 사토 시게키 연구위원은 「원효에 있어서의 화쟁의 논리」에서 원효 사상의 세계성은 법의 세계를 화쟁의 논리, 즉 무(無=無心=無心) 이불수일(而不守一=饑飽衆生)이라는 사상구조에 의해 파악한 점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 사상의 중요성은 자기와 세계를 통합한 진리세계의 장에 자기의 참된 존재성을 확립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국대 권기종교수는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에서, 「원효의 정토관은 정토의 예토(緣土)가 객관적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개되는 두가지 세계이므로, 정토라는 별도의 공간적 영역이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토」라고 말했다. 즉, 아마타발의 정토 세계도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학술회의는 알찬 논문들이 발표돼, 원효학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경 기자〉

회와 공동으로 지난 17~19일 삼일간 서울 한국의 집과 도쿄 파리아호텔에서 범종교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 등 7개 종교 지도자들 백십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 민족의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과 건강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 종교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토의하기 위

재물보시와 마음공부 차이는
문 학식이 높거나 재력이 넉넉해서 남에게 베풀다 가는 사람과 현실의 능력은 없어도 마음공부하다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지요.
 (충북 음성군 금강읍·최정례)

답 재산이 많아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50%, 유위법이니 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공부하면서 마음으로도 공덕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됩니다. 재력과 능력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을 보시란 세세생생을 건지는 것이고 무명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되 물질적 보시에 그쳤다면 아무리 보시를 많이 했어도 공덕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한반도에 또 전쟁이 날까요
문 북한 핵문제가 일단 타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동태를 보면 아직

답 북한 핵문제가 일단 타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동태를 보면 아직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분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가음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25를 겪은 세대로서 전쟁경험을 자주하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는지요.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박진영)

답 나는 전쟁이 안난다고도 하지 않고 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달린 문제지요. 국민들이 북방귀 탕 튀면 탕 튀는 대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아니, 사람의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풀이 아니고, 우주하고도 풀이 아니고 세상하고도 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핵을 만악에 그렇게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주물러서 만든 것이지 그제 저질로 생긴 게 아니라 믿습니다. 수소폭탄이 있고 무슨 핵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입니까
문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자연대·최재성)

답 우주도 이롭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들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벼룩만한 것이 우리 몸들이 안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 벼룩만한 게 보기에 오직유부만해도 얼마나 크고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의 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입니까
문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자연대·최재성)

답 우주도 이롭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들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벼룩만한 것이 우리 몸들이 안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 벼룩만한 게 보기에 오직유부만해도 얼마나 크고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의 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행복 추구가 공동목표

대만 「정치와 종교」 학술회의서 홍윤식교수 주장



◇홍윤식교수

대만 정치 각 불교 연구소(소장 정심)가 주최한 제 7회 국제 불교학술 회의가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 중, 일에서 모두 10여 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석 「종교와 정치」란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국측에서는 한국불교대학의 석가산스님과 동국대 홍윤식교수가 참석, 「조선왕조의 불교 탄압과 당대 한국의 불교 개혁」과 「종교와 정치」를 각각 발표했다. 홍윤식교수는 「종교와 정치」는 역사와 사회를 향해 행복의 추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행복 추구가 양자

의 공동 목표라고 하면, 정치와 종교는 권력과 신앙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서로 상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정치와 종교」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가져다 주는 점에서 국내외 불교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철학과 지성 조망
정문연 세미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현재) 철학·종교연구실은 지난 18일 대강당에서 「현대 한국철학에 있어서 창조적 지성의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동양철학분야 및 서양철학분야와 동서비교철학의 연구방법론을 검토하여, 한국철학이 향후 지향해 나갈 창조적 지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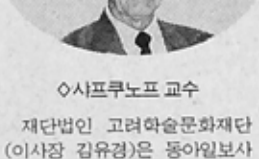
통일·도덕성 회복위한 종교계의 역할 토론

문화체육부는 한국종교인명

문화체육부는 한국종교인명

“발해유적지에 고구려 절터있다”

국동대 사프쿠노프교수 발표



◇사프쿠노프 교수

재단법인 고려학술문화재단(이사장 김우경)은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회 한국민족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에서 조사된 고구려와 발해유적

중심으로 이 지역 민족사를 조명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구려의 북방영토 경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고구려 책성(柵城)의 위치 △연해주와 발해유적과 정치 △고구려 천리장성 현황 등 고대사의 정점들에 관한 주제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러시아 국동대의 사프쿠노프교수는 「연해주의 발해유적」이란 논문에서 발해시대와 고구려 관련 연해주지역 유적지들의 현황을 보고하

山寺의 향기

불자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바로 그 비디오!!
 사찰의 모든 것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사찰이란 어떤 곳인가.
 일주문·천왕문·금강문 등에는 무슨 뜻이 있고,
 대웅전·작광전·극락전은 어떤 법당인가.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오랜 동안 불교를 신봉해온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찰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비디오로 쉽게 배운다.

주요 수록내용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사찰의 의미
 법고, 옥어, 운판, 범종 등 주요 법기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사찰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정가 : 20,000원

대정프로덕션
 서울·중구 을지로 3가 302-2 승광BD 601호
 구입문의: ☎ (02) 275-9459 · 265-9458